

안철수 “중재파도 본질은 통합에 방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가 7일 오전 여수시 여수박람회장에서 열린 '여수마라톤대회'에 참석해 출발종을 울리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7일 여수에서 “중재파들의 당내 갈등에 대한 중재 노력도 본질은 통합에 방점

“당원과 국민이 바라는 만큼 따르는 게 도리”
“시너지 효과 입증...최선의 방법 찾고 있어”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 여수시 여수박람회장에서 열린 '여수마라톤대회'에 참석해 부인 딸과 함께 5km 구간을 뛰었다.

이어 인터뷰를 통해 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안 대표는 “당원 75%가 통합을 찬성하고 있고 공신력 있는 여러 여론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바른 정당)과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됐다”며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정치인과 정당은 당원과 국민들의 뜻을 따르는 것이 도리이다”고 통합 반대파를 겨냥했다.

이어 “중재파의 중재안도 본질은 통합이고 통합을 이루기 위한 최선

의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다”며 “어떻게 하면 원만한 통합을 할 것인가 당원과 국민이 원하는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최선 방법을 찾는 것에 방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 “김한길 전 공동대표가 귀국해 통화를 했고 조만간에 만나기로 했다”며 “당이 통합하는데 많은 역할 기대하고 있고 의는 하겠다고 말했다.

통합 유보와 설득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설득하고 있다. (여수) 오는길에 집에 찾아가고 전화통화로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춘정 기자



輿 출마자 ‘친문 행보’ 본격화

당 경선 승리=본선 승리...대통령 마케팅史 재현

70%대에 이르는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우세가 점차되면서 여당 출마 준비자들의 이른바 ‘문재인 마케팅’이 본격화되고 있다.

당 경선 승리가 곧 본선 승리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친문 표심 확보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비문으로 분류되는 후보들은 문 대통령 인기의 후광을 얻기 위해 자신을 친문 후보로 이미 친문으로 불렀던 후보는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할 ‘진문(眞文)’으로 자신을 규정하고 있다.

비문으로 분류되는 후보들은 문 대통령 인기의 후광을 얻기 위해 자신을 친문 후보로 이미 친문으로 불렀던 후보는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할 ‘진문(眞文)’으로 자신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를 두고 경쟁 관계에 놓인 박원순 의원과 이상민 의원도 ‘기싸움 중’이다. 박 의원은 당적폐청산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서울시 출신 다수 인사가 청와대로 진출한 점과 현 정부

출마자 선거에서는 ‘친문’의 자격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양승조 의원은 5일 YTN 라디오에 출연, 경쟁자인 박수현 정의대대변인이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에 안희정 충남지사를 도운 점을 겨냥해 “우리 대통령님 쪽의 어떤 운동을 한 건 아니지 않냐 정의대대변인은 탕평 차원에서 대변인의 직책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친문 경쟁’에 불을 붙였다.

대전시장 선거를 두고 경쟁 관계에 놓인 박원순 의원과 이상민 의원도 ‘기싸움 중’이다. 박 의원은 당적폐청산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서울시 출신 다수 인사가 청와대로 진출한 점과 현 정부

대통령 지지율 70%대 고공행진에 ‘친문 경쟁’

SNS사진 바꾸고 팟캐스트 진행...비문진영 주도

과거 박근혜·이명박·노무현 마케팅과 유사해

가 서울시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박원순 의원의 경우 문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트위터 계정 배경으로 설정했다. 박 의원은 4일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의 전화통화 이후 자신의 SNS에 “대통령님의 선한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다. 서두르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기다리는 선한 리더십 힘찬 박수를 보낸다”고 적었다.

서울시장 출마를 고민 중인 이상호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서울시장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안 된다”며 “문 대통령이 가진 큰 개혁방향을 서울시에서 성공시키는 사람이 시장이 돼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와의 공동보조를 강조하고 있다.

민병두 의원 역시 자신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정해구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는 등 친문파의 스킨십에 노력하고 있다.

수하는 사진으로 바꾸는 등 친문파의 거리감을 좁히려 노력하고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을 때 발생하는 ‘대통령 마케팅’은 선거 때마다 되풀이됐던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명박정부 출범 직후 열린 2008년 총선에서도 출마 지역 뒤에 MB를 붙여 ‘OOMB’라고 자신을 각인시키는 ‘MB맨’들이 존재했다. 다만 대통령 취임 이후 한반도 대운하 건설, 영어몰임 교육, 불통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해당 문구는 지위를 감했다.

박지원 “당내 중립과 중재안 실현성 없다”

신당 창당 관련 “安 통합 저지가 우리 목표”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7일 당내 중립파의 중재안에 대해 “제가 볼 때는 실현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 여수시 여수국제마라톤 개최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안 대표 측에서 절대 받아들이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재안 내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받아보지 않고 박주선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며 “안 대표가 먼저 사퇴를 하고 그리고 전

당대회를 열어 당원들에게 통합 여부를 물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중재안을 안 대표가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받는다”며 “안 대표가 사퇴하려고 했으면 대표를 안 나왔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사퇴하지 않고 또다시 대표당원들에게 물어보라고 하면 이분들(통합파)은 75%로 이미 통과됐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재안에 대해 “중재안은

어떻게 됐든 통합을 반대하면서 당을 실패보려는 중립”이라고 평가하면서 “성공은 어렵다고 본다”고 실현 가능성을 낮게 봤다.

박 전 대표는 “안 대표와 갈등이 더 깊어진 것 같다”는 지적에 “갈등이 훨씬 깊어졌다”며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안 대표가 절대 통합의 통지도 안 꺼냈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꺼내놓고 통합을 밀고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참여 의원 일부가 개혁신당 창당에 유보적인 것”에 대해서는 “30여명의 의원들이 통합에 반대하면서도 개혁신당 창당에는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저희에 서명한 분도 그런 의사를 표명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저희에게 서명 안한 분들도 도저히 이대로 가선 안되겠다 (통합 추진 여부를) 봐서 함께 하겠다는 분도 있다”며 “우리 크게 걱정하지 않고, 그분(통합 유보적인 의원)들도 안 대표가 통합을 계속 밀고 나갈 때는 개혁신당에 돌아온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개혁신당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조속대 대표가 결정하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창당 안주”와 관련하여서는 “우리의 목표는 안 대표의 통합 저지”라며 “안 대표가 돌아오지 않거나 창당을 밀고 나가면 우리는 확실히 창당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춘정 기자

유승민 “통합신당, 숫자보다 정체성 중요...국가안보관 유사해야”

“국민의당, 외교 안보·남북 문제 스펙트럼 너무 넓어”

유승민 바른정당 당대표는 6일 “(통합신당)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라며 “국민의당 안에서 개혁보수를 주장하는 바른정당의 국가안보관과 유사한 분들과 같이 가는 게 좋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허성우의 뉴스와 사람들에 출연해 “신당을 만들기 전에 외교 안보에

폭 합의를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대표는 “어느 정당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 국민의당은 특히 외교 안보 문제, 남북 관계 문제에 있어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 왼쪽 끝에서부터 오른쪽 끝까지 있다”고 설명했다.

유 대표는 “국가 지도자나 정당

들 입장에서는 안보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국가 안보에 대한 정체성이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당 안에서 국가안보관이 어느 정도 유사한 분들과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냐는 점을 (국민의당에) 계속 부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 후 안보문제 등 계속 갈등이 생기면 시너지 효과가 떨어지지 않겠냐는 질문에 유 대표는 “현

실적으로 정치에서 숫자가 중요하다”면서도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도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한다”고 답했다.

또 “바른정당이 국민의당보다 의원들 숫자는 적지만 통합을 한다면 누가 누구를 흡수하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양 당사자 간에 의견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고 양 당사자가 전부 다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통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스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제품의 모든 것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무료상담환영”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